

# 복지사각지대 틈새 없앤다

## 남원시,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실시

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복지사각지대의 틈을 없애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신규신청대상자가 전북형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

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를 선정 발굴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전북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이다.

대상자는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 탈락 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신청을 병행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중도시 재산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이 9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강원구 주민복지과 과장은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수급 한도를 하향하도록 노력해, 보다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및 제74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건강증진 캠페인’을 임실시장에서 실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했으며, 흡연 폐해를 강도 높여 경고하고 있다.

“깨우세요! 우리의 금연본능”과 구강의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이란 슬로건으로 니코틴 의존도 평가, CO측정, 나의 폐 나이알



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복지사각지대의 틈을 없애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및 제74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건강증진 캠페인’을 임실시장에서 실시했다.

## 임실군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 캠페인

남원시, 깨끗한 물 공급 주력  
상반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남원시는 최근 시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품질 수도 서비스 운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설했다.

연 2회 개최되는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시의원, 환경단체, 여성단체, 시민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질검사 현장 참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자문활동 등 시민을 대표해 수돗물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중심으로 2019년도 상수도 주요추진사업 보고와 시민홍보방안에 대한 자문 등 남원시 상수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남원시상수도사업소는 40년 이상 된 율탁정수장 전면개량을 위해 확보한 국비로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해 최신식 정수시설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및 제74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건강증진 캠페인’을 임실시장에서 실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했으며, 흡연 폐해를 강도 높여 경고하고 있다.

“깨우세요! 우리의 금연본능”과 구강의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이란 슬로건으로 니코틴 의존도 평가, CO측정, 나의 폐 나이알

## 순창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호응

8억5600만원 들여 214호 선정해 호당 400만원 범위내 수리

순창군 소외계층 가구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업비 8억5600만원을 투입, 주택 214호를 선정해 호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해준다.

이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가정형편상 집수리에 임무를 내지 못하는 주민, 총 1199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남원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홍보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달리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 접종으로 폐렴구

## 남원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홍보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달리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 접종으로 폐렴구

균 감염에 의한 폐렴,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접종력 여부가 궁금하면 보건소 예방접종실(620-7939, 625-3864)로 전화 확인이 가능하다.

## 순창 관내 20곳 기업체에 문화공연 배달

지난해 3곳서 올해 20곳 혜택

순창군이 관내 기업체에 문화공연을 배달한다. 이는 지난해 각종 매스컴에 관심을 받으며, 각광 받았던 문화배달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군은 직장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회사의 소속감과 자부심 증대를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이며, 관내 3곳 기업체를 방문해 문화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공연장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은 줄이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기업체들의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3백만원이었던 사업비도 올해는 3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며, 지난해 3곳 기업체가 불과했던 것을, 올해는 20곳 기업체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비는 순창군이 2019년 일자리



순창군이 관내 기업체에 문화공연을 배달한다.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인센티브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군은 지난 7일 모집공고를 통해 2개 문화공연 수행단체를 선정했다. 또,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연내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관내 기업체중 8곳이 공연 요청을 희망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공연을 진행할 단체도 지난해 관내 아마추어 동호인 단체에서 문화통신사협동조합과 순창음악협회로 선정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깨끗한 물 공급 주력 상반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남원시는 최근 시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품질 수도 서비스 운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설했다.

연 2회 개최되는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시의원, 환경단체, 여성단체, 시민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질검사 현장 참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자문활동 등 시민을 대표해 수돗물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중심으로 2019년도 상수도 주요추진사업 보고와 시민홍보방안에 대한 자문 등 남원시 상수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남원시상수도사업소는 40년 이상 된 율탁정수장 전면개량을 위해 확보한 국비로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해 최신식 정수시설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 남원시, 쓰레기 종량제 정착 나서 8월말까지 중점단속 과태료 부과

남원시는 여름철 쓰레기 악취 등을 대비해 오는 8월말까지 관내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서남대 쓰레기 집하장, 용담교 등의 취약지구 및 암림단지 등 관공지 주변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는 단속반을 환경과 일반 직원, 쓰레기 수거 운전직원 및 환경관리원 14명을 2개조로 편성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중점단속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해 무단투기 쓰레기 배출 및 불법 소각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계획이다.

남원시 왕길성 환경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의 근절을 위해 중점단속 기간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및 소각 금지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maeil.com